



심화 · 이기선

### 만해스님의 외침 다시 듣자

만해는 한국불교를 개혁하려 하였다. 그가 불교유신론을 발표한 것은 행동없는 사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 현실적인 교단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만해가 느꼈던 바 또한 개혁되어야 할 것들을 논술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도 만해의 느낌이 생소하지 않고 더욱 절실한 것으로 진신에 경련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면, 과거의 흥분이 현실적인 병통으로 현현된 사실은, 역사의 몸부림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

교에 힘쓰지 않음이 없는 실정이나, 누구는 종교의 의무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다고 하라. 본래부터 그렇다고 할밖에 없다.

종교개혁의 확충은 그 교리를 선포하는 열렬한 의무감이 앞서야 한다. 자기만이 이해하고 자기만이 신앙하면

어지고 나중에는 세력으로부터 포교가 이루어져 이런 식으로 하여 세월이 흐른다면 그 축적된 결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가 동서양을 거의 휩쓴 것도 이 방식을 쓴 까닭일 뿐이다.

만해의 포교운동은 다수를 향한 외침이 아니다. 한사람이라도 착실하게 전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부처님이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항상 훈자서 떠나라고 권유하였던 것을 생각해

#### 목정배 교수가 쓰는

#### 오늘의 불교

15

#### 포교

### “아라한적 신앙형태 지양 중생이익·평화위해 전법”

이러한 대목이 일치하는 것은 불교 교단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었던 치유하기 어려운 종교적인 고질과 병폐를 만해가 종교사관으로 예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형적인 변화는 시대의 추이에 비추어 약간 변형되었다. 그러나 내면적인 의식 변화는 동시적 상황에 머물고 있는 것이 오늘

의 현실이다. 만해는 포교에 대해서도 대단한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는 왜 포교가 잘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히려 하였다. 종교개혁의 미약한 종교개혁의 무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르침은 종교 의무 경지 좋게 위치한 명산의 대찰에서 찾아오는 신도만을 상대하면서 불교인들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나약한 포교법이다. 시종으로 달려나와야 한다. 만해는 포교부진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다.

부처님이 전도의 선언에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중생을 위하여 이익, 안정, 평화가 증강될 때까지 포교를 시도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만해는 전도에 대한 의견으로써 다음과 같이 주창하였다.

“아라한적 신앙형태로서는 종교가 확대되지 않는다. 진리를 밝혀 공부하면서 무지를 제도한다는 사명 의식이 앞서야 한다. 부처님이 전도의 선언에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중생을 위하여 이익, 안정, 평화가 증강될 때까지 포교를 시도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만해는 전도에 대한 의견으로써 다음과 같이 주창하였다.

“한 사람에게 전도하면 한 사람의 세력이 커진 것이고 두 사람에게 전도하면 두사람 만명의 세력이 커진 것이 되어 포교가 성행하면 세력이 더욱 높고 세력이 더욱 높면 사람들이 따르기 쉬워지고, 사람이 따르기 쉬워지면 포교의 정도가 그만큼 이상으로 진척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포교로부터 세력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만해 자신도 말하기를, “우리가 포교를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자격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자격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는 열성, 둘째는 인내, 셋째는 자제가 그것이니 그 셋중에서 하나라도 결여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포교인(布教人)이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포교하는 사람의 자격은 음성이 좋거나 사상이 훌륭한 것이 아니다. ‘열성’ ‘인내’ ‘자제’가 가슴속에 내재하여야 함을 만해는 강조한 것이다. 정법을 전달하려는 열성 정도가 곧 구도정신임을 지적하는 마음이 앞서야 하는 것이다. 침묵하는 포교, 단박자 악기를 두드리는 포교, 앉아 있는 포교는 현대에 있어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 “소설·묵화는 내 주인찾는 여행”

〈꿈꾸는 식물〉 〈꿈〉 〈장수 하늘소〉 〈들개〉 〈벽오금학도〉 ...

이외수라는 소설가라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의 긴 머리카락과 세수도 하지 않은 얼굴, 그리고 전설처럼 떠도는 기행(奇行) 이야기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의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를 ‘기상천외한 인물’이라 생각하게 된다.

소설가 이외수의 그림 그리는 방법도 역시 이외수다운 방법이다. 그는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는 질문에 잘 대답하지 않는다.

“번개를 잡아채는 순간에 한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시간도 멈춰버린 그런 시간에 그려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봉악필이 대단한 겁니다. 새벽에 해를 치는 닭, 그 순간 닭은 닭이 아

## 소설가 이외수

니다. 그는 단지 인간이고 소설가이고 봉부림지는 예술가일 뿐이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는 인간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꿈꾸는 식물

입니다. 그야말로 봉이거든요. 그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견주고 따져서 그런 것이 어디 그림이 되겠습니까? 파천일성(拔天一聲), 하늘의 정적울

## 산문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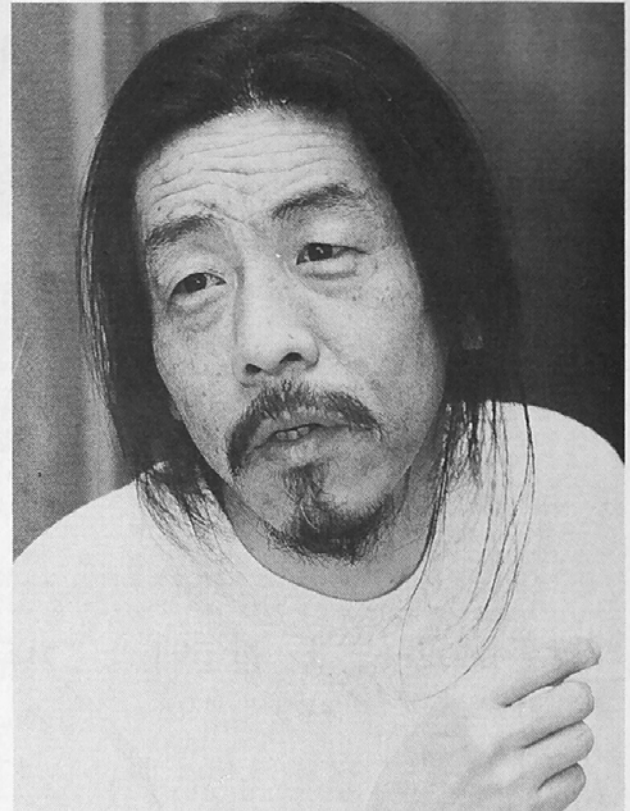
이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인간 세상을 거부하고 하늘로 날아가는 장수 하늘 소란 생각을 갖게도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이외수이기 때문이다.

### 동글고 부드러운 것

“나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내가 없는 우주는 존재하지 않으니깐요. 그런데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바로 그 나의 주인을 만나지 못해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객지를 떠도는 여행자처럼 말이죠.”

그는 자신의 ‘주인찾기 여행’ 길에서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아이들과 장난도 치고 또 아내와 사랑도 한다고 말했다. 그에게 여행이란 표현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지 한다. 그가 젊은 시절 누구보다 많이 떠돌아 다녔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 젊은 시절의 좌절과 방황이 ‘동글고 부드러운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는 건머리의 소설가는 요즘 그림 그리는 일에 몰두해 있다고 한다.

“봉악필(鳳翼筆)로 그림을 그리니까 그 붓은 대단한 것입니다. 닭털로 묶은 것인데 삐죽삐죽 제멋대로인 붓에 먹을 묻혀 종이까지 먹물을 흘리지 않고 가져 가는 정도까지만 두세달의 연습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그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수년의 피로하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이제사 나는 봉악필로 먹물 흘리지 않고 그림을 그립니다.”



## “번개를 잡아채는 순간에 한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붓으로 하여금 나를 쓰게해야 하는 겁니다”

깨는 한 소리가 새벽 닭울음이라면 그의 그림은 인간의 고뇌를 깨부수는 깨달음의 순간적 희열을 담기위한 몸부림인 셈이다. 서양화를 공부했던 그가 먹의 세계에 빠져 든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라고 한다. 먹은 가는 순간부터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까지 온통 선정의 맛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외수씨는 “내가 붓을 움직여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붓으로 하여금 나를 쓰게 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도 없고 붓도 없는 곳에서 파천일성의 행하는 순간에 학 한마리가 날아 오르고 메기 한 마리가 여유지적의 몸짓으로 물밀을 노니는 것이죠”라며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듯 건넵니다.

사람을 순수하게 만든다는 먹이 그에게 무심(無心)의 이치를 가르쳤다면 그가 소설을 쓰는 원고지 한칸한칸은 그가 무심으로 앉아 있는 선방이다. 그 방에서 그는 인간의 삶을 엿어 낸다. 그가 엿어내는 삶은 바로 ‘깨달음’이다. 그는 거들거들 감

조한다. 사람은 깨달아가며 살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들개’를 그리는 화가의 탐미적 발악도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벽오금학도’의 신비도 벗어 버린 듯한 이외수.

그는 인간의 삶이 아름다와 지는 길을 찾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세상을 낚시터로 삼고 그곳에서 진정한 낚시법을 깨우치는 한 노인인 청년의 이야기를 장편으로 쓰고 있다고 귀띔했다.

### 깨달아가며 사는 삶

“그물이나 무망을 던지고 약을 뿌리고 바테리를 쓰면서까지 물고기를 잡아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매우 불행합니다. 마음으로 고기를 낚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아름다와 질 수 없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낚시법을 제시하고 싶다는 그는 “생노병사 희노애락은 인간의 그림자”라고 잘라 말한다. 부처님도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출가했지만 결국 그 고통을 벗어나지 않는 진리를 깨달아 인간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란 설명이다.

“나는 주체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객체를, 그것이 곧 나의 것임을 절절히 깨닫고 그것을 무애자재하게 다스리는 것이 성불(成佛)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에서 비롯되고 인간에서 마쳐지는 깨달아가는 삶의 의미를 그는 방향과 가난과 슬픔 여행 그리고 사랑을 통해 알게 됐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소설도 그림도 두뇌를 먼저 버리고 오직 마음으로 쓰고 그리겠다고 말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이것은 도 알리지 도 알리지 백이리랑 아리리랑 이것은 알리리 알리리 알고 말리리입니다. 또 동창이 밝았느냐는 도가 났느냐는 근엄한 물음이지요 이만하면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절실함이 어떤 것인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임연태 기자)

## 佛敎聖地巡禮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습니다.”

### 태국 5일

₩ 595,000

서울-방콕(2박)-아이유타 방콕인 수상시장, 새벽사원, 왕궁, 에머랄드 사원, 무암보관, 황금불 사원-파타야(2박)-방콕-서울

출발일: 2월/23, 28 3월/2, 7, 9, 14, 16, 21, 23, 28, 30

대만 5일	₩ 595,000	서울-대북-일월담(1박)-고웅-불광사(1박)-화련(1박)-대북(1박)-서울	2월/22 3월/1, 8, 15, 22, 29
스리랑카 6일	₩ 1,070,000	서울-콜롬보(1박)-아누라푸라-하비라나(2박)-폴론나루와-덤볼라-캔디(1박)-콜롬보(1박)-서울	2월/24 3월/3, 10, 17, 24, 31
미얀마·태국 8일	₩ 1,400,000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페구-양곤(1박)-방콕(2박)-서울	2월/24 3월/3, 10, 17, 24, 31

## 新春海外旅行

-최고의 여정·최상의 서비스·최대의 기쁨-

방콕·파타야 5일	₩ 68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2월/22, 25, 26 (₩715,000) 3월/1, 4, 5, 8, 11, 12, 15, 18, 19, 22, 25, 26, 29
방콕·푸켓 5일	₩ 795,000	서울-방콕(1박)-푸켓(3박)-서울	2월/23, 25, 26 3월/4, 11, 18, 25 (₩725,000)
동남아 3국 5일	₩ 745,000	서울-싱가폴(4박)-바탄-조호바루-서울	2월/20, 22, 24, 25, 27 3월/1, 3, 4, 6, 8, 10, 11, 13, 15, 17, 18, 20, 22, 24, 25, 27, 29, 31 (₩655,000)
방콕·푸켓·싱가폴 6일	₩ 895,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싱가폴(2박)-서울	2월/23, 28 3월/7, 14, 21, 28 (₩795,000)
하와이 5일	₩ 679,000(일급) ₩ 765,000(특급)	서울-호놀룰루(3박)-기내(1박)-서울	2월/22, 23, 25 3월/1, 2, 4, 8, 9, 11, 15, 16, 18, 22, 23, 25, 29, 30
미국 서부 버스 7일	₩ 799,000	서울-LA(1박)-플렉스(1박)-라스베가스(1박)-후레노(1박)-샌프란시스코(1박)-기내(1박)-서울	2월/24, 27 3월/6, 13, 20, 27
유럽 5개국 10일	₩ 1,790,000	서울-영국-독일-스위스-이탈리-프랑스-서울	2월/23 3월/2, 9, 16, 23, 30
사이판 4일	₩ 735,000	서울-사이판(3박)-서울	2월/23, 24, 26 3월/2, 5, 9, 12, 16, 19, 23, 26, 30 (₩645,000)
괌 4일	₩ 735,000	서울-괌(3박)-서울	2월/23, 26 3월/2, 5, 9, 12, 16, 19, 23, 26, 30 (₩645,000)
호주·뉴질랜드 8일	₩ 1,745,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로트무어(2박)-오랜드(1박)-시드니(2박)-서울	2월/23, 25, 26, 27, 28 3월/2, 4, 5, 7, 9, 11, 12, 14, 16, 18, 19, 21, 23, 25, 26, 28, 30 (₩1,545,000)

## 新婚旅行

“새로운 출발, 허니문 전담팀이 권해 드리는 일곱색깔 무지개 여정”

방콕·파타야 5일	₩ 63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푸켓 5일	₩ 740,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방콕(1박)-서울
대만(화련) 4일	₩ 520,000	서울-대만(화련) 3박-서울
괌 4일	₩ 670,000	서울-괌(3박, 4박)-서울
사이판 4일	₩ 670,000	서울-사이판(3박, 4박)-서울
하와이 5일	₩ 790,000(일급) ₩ 890,000(특급)	서울-하와이(3박)-기내(1박)-서울
호주 5일	₩ 1,109,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 2박)-시드니(2박)-서울

여행조건 10인 이상 출발(허니문은 1쌍이라도 매일 출발), 전 일정 식사 제공,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허니문은 특급호텔), 해외 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현지 가이드 동행

특전 2개월 전 예약시 5% 할인, T-Shirt, 모자 증정, 축하 와인, 과일바구니 제공, 해산물 부패 보증